

세계관이 바뀌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요셉의 삶을 통해 보는 세계관과 미디어의 역할

신국원



우리시대의 미디어

우리들은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다.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달'인데 전달은 단순히 사건을 줄여서 옮기는 것 뿐 만 아니라 전달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해석이 제대로 되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상당히 달라진다. 그러나 오늘날 미디어는 두 가지에 점령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은 엔터테인먼트와 비즈니스이다. 상업성과 오락성에 몰든 미디어는 제 기능을 잃거나 또는 아주 크게 왜곡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쉼(rest)인데 인간을 창조한 이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하신 일이었다. 그러므로 한 주일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삶의 조건을 확보하고 그 대가로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인간의 존재는 안식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다. 사실 인간에게 엔터테인먼트는 쾌락(pleasure)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상실된 현대인, 특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쉼은 죽도록 즐기는 쾌락의 문화이며 중독이다. 닐 포스트먼(Neil Postman)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으로 가는 길

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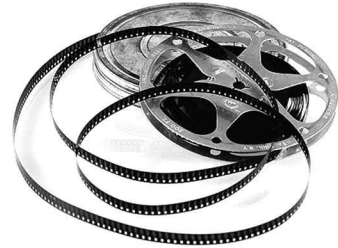
하지만 쾌락과 돈벌이로 타락한 미디어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처럼 소명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귀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요셉의 메시지 해석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풀려 나온다. 그 당시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바로는 신적인 메시지가 느껴지는 꿈을 두 가지 연속으로 꾸고 고민에 빠진다. 추측컨대 바로는 꿈을 꾸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상징성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테스트하기 위해 궁에 있는 모든 학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 당시 왕의 보좌관들은 정치보좌관이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점성술사들이었다. 그들은 천문을 보며 일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 점성술사들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알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메시지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뿐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흥년과 풍년은 나일강과 태양신의 뜻이지 일기변화에 관한 이야기이거나 농업대책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사실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고
그 힘에 의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까지 달라진다.



는 세계관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신이 흥년을 주면,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석하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지 몰라 속으로는 당황했을 것이다. 그때 새로운 관점을 가진 요셉이 등장했다.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의 7년 간의 풍년과 7년 간의 흉년에 대한 꿈 해석을 듣고 속으로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도대체 새로운 것이 뭐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요셉의 놀라운 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해석하여 선포한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자, 풍년 때에 곡식을 축적해두면 흉년을 넘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그 당시 태양신을 섬기고 운명에 순응하여 살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었다. 인간은 관점이 바뀔 때 사실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고 그 힘에 의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까지 달라지는 것이다.

오늘날의 미디어 또한 사실을 전달 할 뿐 아니라 해석까지 한다. 미디어는 세상을 열어 보여주는 힘이 있으며 미디어 자체가 문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디어 분야에서 활동하

고 있지만 사회에 별다른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기독교 방송들도 성경적 진리에 제대로 서 있는 방송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기독교' 방송임을 주장하면서도 메시지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방법이 성경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기독교' 방송으로서 무의미한 일이다.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영을 예로 들면 기독교적 경영을 한다는 것이 업무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형식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디자인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관점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할 때 결과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또 다른 꿈의 해석

이러한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놀라운 꿈이 있다. 요셉은 어린 시절 두 가지 꿈을 꿴다. 첫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는 형들의 곡식 단이 자신의 곡식 단에게 절을 하

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것을 자랑삼아 형제들과 부모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미움을 받게 된다. 어머니가 넷이며 이복형제들이 여럿이고 아버지의 편애로 형제간에 갈등이 심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요셉에게 이러한 행동은 다른 형제들의 질투심을 일으켰고 그로인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만들었으며 결국 형제들에 의해서 이웃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결과는 낳았다. 아마도 그 당시 어리고 미성숙한 요셉의 관점에서 그 꿈은 모든 형제들을 제치고 자신이 가장 탁월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함으로 인하여 자만심을 갖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해석과 달리 상황은 정반대로 펼쳐졌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 상황이 나빠지더니 결국은 누명을 쓰고 시위대장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이때 극적 반전이 일어난다. 바로의 꿈을 탁월하게 해몽함으로 갑자기 죄수에서 총리가 되는 요셉의 이야기는 세상의 밑바닥에서 신분이 수직상승하게 되는 이 부분이 클라이맥스라고 느껴진다. 그러나 성경의 스토리 전개는 우리들의 예상과 전혀 다르다. 이제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요셉의 위기는 형들에게서 팔려서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도 아니었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아니었으며, 이집트의 총리대신이 되어 이름을 '사브넛바네아(네 속에서 말씀 하신다)'라고 바꿀 때였다.

이름 바꾸는 일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다.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 '므낏세'란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이었고, 둘째 '에브라임'은 '수고한 땅에서 내가 창성하겠다'라는 의미였다. 아마도 요셉은 어린 시절에 꾸었던 자신의 꿈을 되돌아보며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

으니 과거를 모두 잊고 여기서 잘 정착해 보겠다고 다짐한 듯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 꿈을 깨우신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를 주었던 형제들이 나타난 것이다. 형제들을 보는 순간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꿰던 꿈을 떠올린다. 예전의 미성숙했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꿈을 해석하는 안목을 갖게 된 그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위로한다. 결국 그는 가정의 화해자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민인 한 부족이 한 국가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

파스칼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아 그가 어떤 분일지를 보여 주는 모델이 되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말한다. 형제에게 팔리는 상황이 동일하며, 그 형제의 이름이 유다라는 것도 같고, 은전을 받고 팔리는 것도 같다. 그리고 옥에 들어간 이후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 편 강도에게 이야기를 각각 달리 하셨듯이 요셉도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하면서 그들의 운명을 달리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부분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었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해석하는 관점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빛을 따라서 미디어를 바로 쓸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미디어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디어를 해석하고, 문화를 해석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5기 개강예배 설교문을 요약한 것이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 담당 교수이며 분당중앙교회 협동 목사이자 어바나 샴페인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교수,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있다.